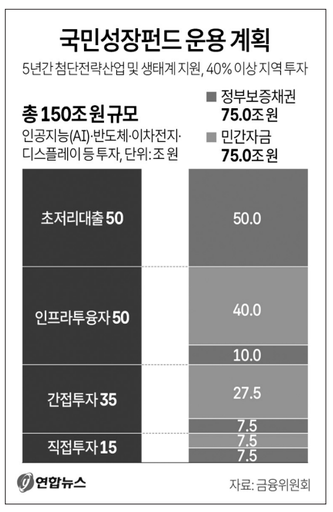
"20년 성장엔진"…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AI 30조·반도체 21조 배분…박현주·서정진 합류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등 '1호 투자처' 후보 물망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펀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을 논의할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합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산업별 배분은 AI(30조원), 반도체(20조9000억원), 모빌리티(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11조6000억원), 이차전지(7조9000억원) 등이 유력하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자금 집행은 출범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에는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선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된다.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명동에서 사채를 쓰던 사업 초창기를 언급하며 "이런 펀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며 "잘 운영하면 건국 이래 최대의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쯤 지나서 '한국 잠재성장률 그래프가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세계 많은 자금이 코리아를 향해 몰려온다'는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현주 공동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 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면서 "10년간 만약 20% 수익률이 나면 10년 후에는 1000조원, 20년은 5700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심사 구조도 확정됐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개별 건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첨단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현재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을 유력한 후보로 점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여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돼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를 열어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시스템 등 도정 시책 설명회'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신협 이사장단,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모색

지방보조금 시스템 등 설명회서 보탬e 구축 현황 공유

전남도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신협과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와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39개 지역 신협 이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시스템 등 도정시책 설명회'를 열어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설명회에선 지역경제 발전과 협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하고, 신협이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보탬e)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공유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은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협의 자체 보탬e 연계시스템 구축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등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방보조금 예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과 관련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경제 안정과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신협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협에도 보조금 예치가 가능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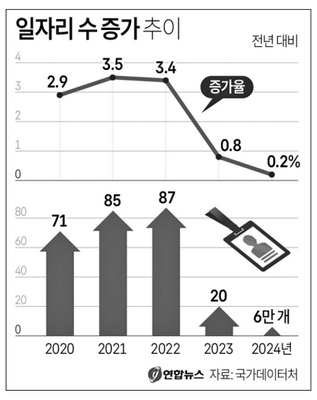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건설업 부진에 작년 일자리 6만개 증가 그쳐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발표

중기 일자리 첫 감소…인구·신규채용 감소 등 여파

금융·보험·운수·창고업도↓…20대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국내에서 일자리가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6만개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개로 전년 대비 6만개(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71만개, 2021년 85만개, 2022년 87만개 등 매년 80만개 안팎을 유지하던 일자리 증가 폭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작년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작년 일자리 증가 폭 축소의 주된 요인은 건설업 부진이라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건설업에서 6만개가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관련 파생 산업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6만개), 운수·창고(-6만개)에서도 감소 폭이 컸다. 도소매(-3만개), 정보통신(-3만개), 예술·스포츠·여가(-3만개) 관련 일자리가 줄었다.

대신 보건·사회복지(13만개),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 등 산업에서 일자리 증가를 떠받쳤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는 국가 주도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어들었다. 작년(-4만개)에 이어 감소 폭을 키웠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개로 1만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감소는 통계 작성 시작 후 처음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 감소는 건설업과 금융·보험 감소의 영향"이라며 "중소기업은 건설업·제조업과 관련한 하청기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일자리가 643만개(24.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40대(603만개·22.6%), 30대(531만개·19.9%) 순이었다.

20대 일자리는 전년보다 15만개 줄어든 328만개였다.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40대에서도 일자리가 전년보다 17만개 줄었다.

반면 60대·70세 이상(각 15만개)에서는 증가 폭이 컸다.

데이터처는 "20대는 인구 감소와 신규 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40대는 인구 감소에 건설업 악화의 영향"이라고 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첫 감소로,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줄었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다.

남성은 1501만개로 6만개(-0.4%) 감소했지만 여성은 1170만개로 11만개(1.0%) 늘어나면서 다른 흐름을 보여 격차가 줄었다.

남성은 건설업 부진, 여성은 보건·사회복지 호조의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풀이했다.

통계에서 사용한 '일자리' 개념은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통상 고용통계에서 쓰는 취업자와는 다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효천1지구 근린생활시설·주차장용지 재공급

LH, 토지리턴제 1년 거치 할부 적용…29~30일 신청 납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효천1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를 재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의 면적은 약 420㎡, 355㎡이며 필지당 공급예정금액은 7억7000만원, 6억9000만원이다. 주차장용지는 면적이 약 854㎡이며 공급예정금액은 11억3000만원이다.

이번 공고는 토지리턴제와 1년 거치 할부가 적용된다.

토지리턴제는 대금 납부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약정일까지 매수인이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 부동산 경기침체 시 매수자의 리스크를 LH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대금납부조건인 3년 분할납부(1년 거치, 유이자)는 계약체결일에 매매대금의 10%를 납부하고 1년 거치 후 6개월 단위로 5회 분할납부, 매수자의 초기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광주효천1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풍부한 녹지대를 갖춰 쾌적한 도시환경이 돋보인다. 효천2지구·진월지구·실버건강타운·풍암유통단지·송암공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 광주남부권의 새로운 신흥 주거지역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급되는 토지 인근으로 회재로 연결 지구외도로(중로 2-501호선)가 조만간 개통 예정이어서 입지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고는 PC 및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확인 가능하며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29~30일, 개찰은 30일이며 낙찰자 발표는 같은날 오후 5시 30분 이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코스피 '불장'에 대형주 투자경고 속출

SK하이닉스·SK스퀘어 추가

올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올해 들어 투자경고 지정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전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 등을 지정 사유로 밝혔다.

시장경보 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며,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위험 종목은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전날 SK하이닉스 종가는 58만7000원으로 1년 전(17만400원) 대비 244% 급등했으며, SK스퀘어도 전날 32만4000원에 장을 마치며 1년 전(7만8200원) 대비 314%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들 종목 주가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소식에 줄줄이 하락 중이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3.75% 급락한 56만5000원에, SK스퀘어는 5.09% 내린 30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한전, 인적자원개발 전략 세계적 호평

한·미·유럽HRD 트리플 크라운

한국전력이 올해 국내와 미국, 유럽의 최고 권위 인적자원개발(이하 HRD) 분야 종합대상을 모두 석권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한전은 최근 한국HRD협회 주관 '제30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지난 5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주관 글로벌 최고 권위의 'BEST Awards' 2년 연속 수상과 10월 EU Unleash(영국 소재 글로벌 테크 그룹) 주관, 'HRD Award' 수상에 이어 국내 최고 권위의 상까지 받게 됐다.

한전은 국내 기업 최초로 한-미-유럽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종합대상을 한 해에 동시 석권하며, 인재육성 체계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은 기업의 경영방침과 연계된 인재육성 전략과 체계 등을 평가하는 상으로 HRD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교수진, 자문위원단이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